

2023 한국리모델링건축대전 대상
2023 한국건축문화대상 공공 부문 본상
2023 한국문화공간상 작은문화공간 부문

문화재생,
도시
에
활기
를
불어
넣는다

조치원1927 아트센터

홍경식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개요

위치	세종시 조치원읍 남리 60-1 일원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변경 전: 공장)
대지면적	6,169m ²
건축면적	1,614m ² (변경 전: 1,061m ²)
연면적	1,703m ² (변경 전: 1,111m ²)
규모	지상 2층
건폐율	26.17%
용적률	27.61%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구조설계	CS구조엔지니어링
설계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담당	나오식, 김진묵, 김봉주, 박연인, 엄유빈
시공	(주)장벽종합건설
기계·전기설계	하나기연
설계기간	2021.3.~2021.7.
시공기간	2021.9.~2022.6.
건축주	세종특별자치시



북측상공에서 바라본 조치원1927아트센터

지역문화예술을 핵심으로 한 공간재생을 통해 원도심에 성장동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건축가의 역할은 커로 이루어진 시대의 흔적이 담겨있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는 일이었다. 조치원 역사의 정체성과 지역주민의 애환과 삶을 보여주는 공간의 흔적을 함께 담고자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남측면에서 바라본 조치원1927아트센터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내부



© 2024
02



© 2024
02



© 2024
02

상·하 연결마당



© 민재영



© 민재영

상 연결브릿지 전경
하 연결브릿지 하부



상 옛 저수조를 활용한 놀이휴게공간
 하·좌 옛 내부수조를 활용해 조성한 휴게공간
 하·우 옛 원형수조를 활용한 실내정원

산업유산의 재사용(Adaptive Reuse)을 위한 원형보존은 안전문제와 건축 관련법의 여러 조건과 부딪혔다. 역사적 가치의 변형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체 맥락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불가피하게 덧대어져 생긴 어색함과 낯설음은 여러 켠의 시간이 공존하는 이곳의 매력이 되었다.



© 이진영

야간 조명이 켜진 연결마당

한림제지 폐공장 부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다

일제강점기에 제사공장으로 지어진 건물은 1970년대 제지공장이 되었고, 2000년 초 가동을 멈춘 후에는 방치되었다. 지역경제 발전의 역할을 하던 시설들이 하나둘 멈추면서 조치원 원도심 일대는 과거 번영하였던 전성기를 뒤로하고 기능을 잃은 채 비어 가고 있었다.

오래된 공장은 조치원 근대산업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어 보존 가치가 있지만 건립기록과 자료가 없었고, 건물의 보존 상태도 좋지 않았다. 오래전 쓰임을 다한 폐공장이지만 건물은 철거되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지은 공장의 건축사적 의미보다는 공장에서 벌어졌던 치열하였던 삶의 애환에 대한 흔적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새로운 용도에 맞는 재생은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시작되어야 하였다.

공장이 가지고 있던 굴뚝과 수조 등을 상징적인 요소로 보존하고 재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존 벽체와 단열이 필요한 신설 벽체를 분리하여 예전의 기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용도를 담아낼 수 있게 하였다.

상징적인 요소의 활용

공장은 이 지역만의 공간적 특성을 갖고 있었다. 지역문화나 도시의 일상이 아닌 색다른 공간을 찾는 도시여행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이곳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공간적 특성을 파악해 문화재생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지역문화예술을 핵심으로 한 공간재생을 통해 원도심에 성장동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건축가의 역할은 켜로 이루어진 시대의 흔적이 담겨 있는 문화공간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이었다. 조치원 역사의 정체성과 지역주민의 애환과 삶을 보여주는 공간의 흔적을 함께 담고자 원형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 2024
2024



상 남측면에서 바라본 조치원1927아트센터
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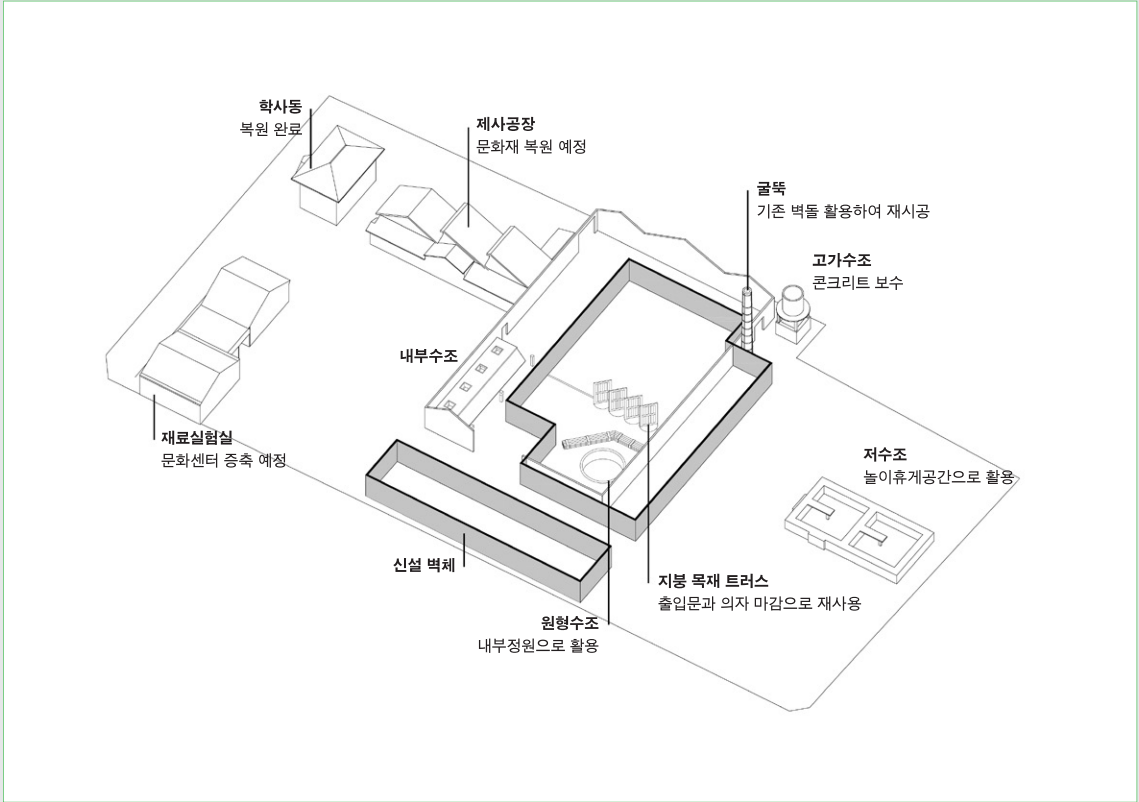
© (주)서울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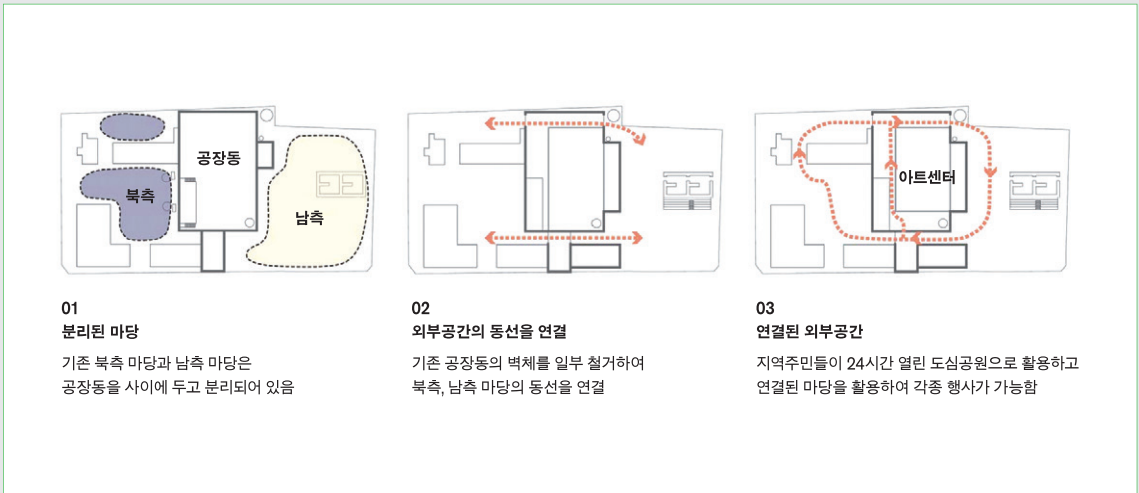
구 한림제지 폐공장 내부



설계 당시 저수조



구 한림제지의 상징적인 요소 활용계획



01 분리된 마당

기존 북측 마당과 남측 마당은 공장동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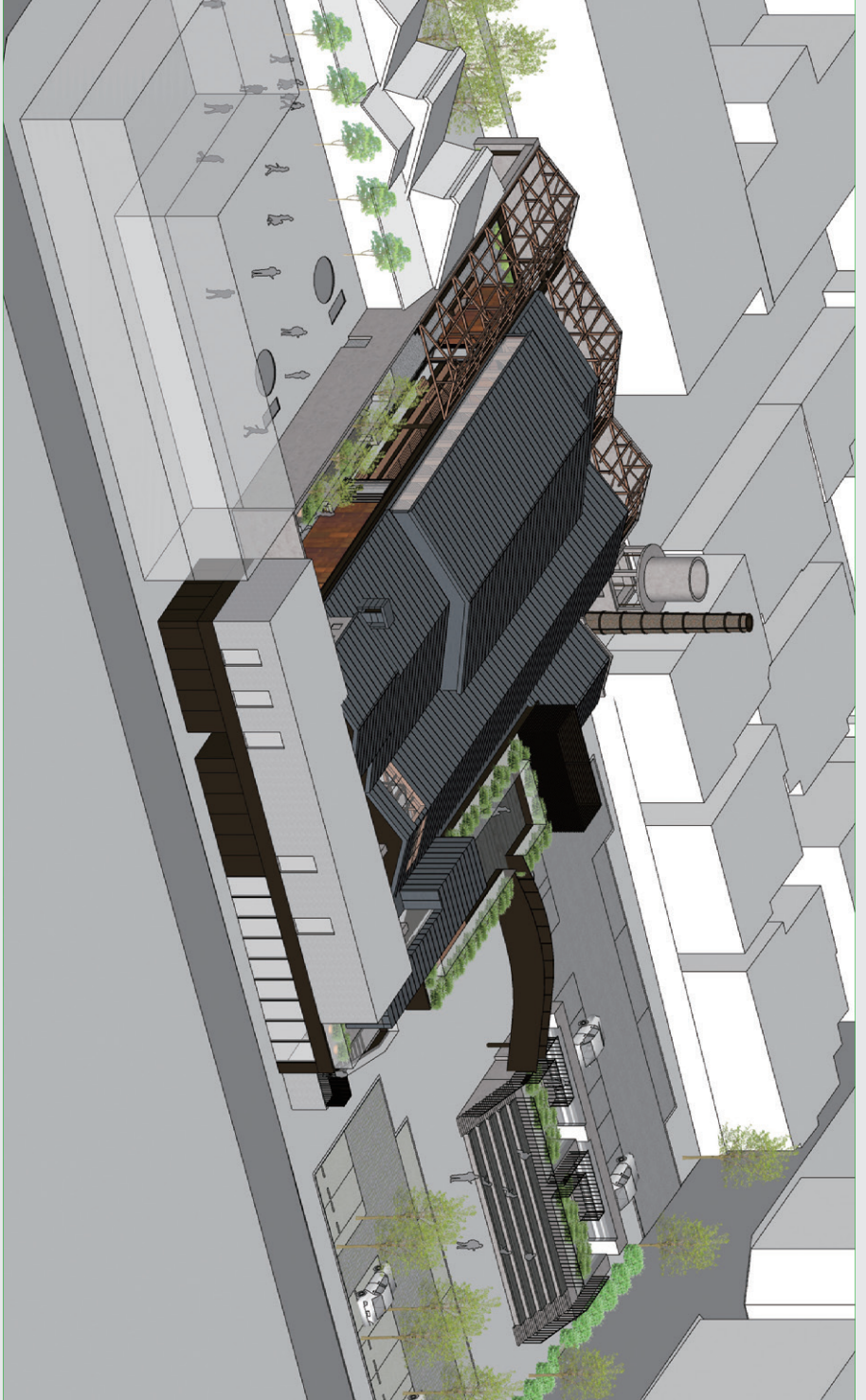
02 연결된 외부공간의 동선을 연결

기존 공장동의 벽체를 일부 철거하여 북측, 남측 마당의 동선을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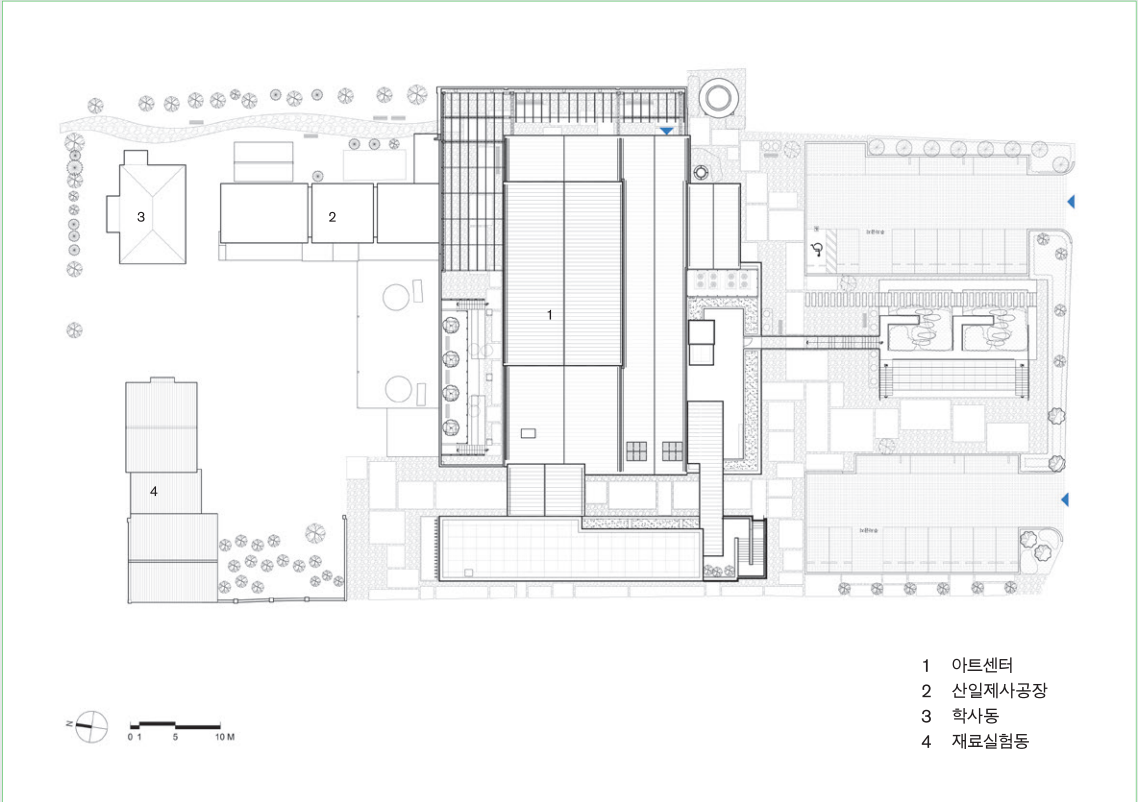
03 연결된 외부공간

지역주민들이 24시간 열린 도심공원으로 활용하고 연결된 마당을 활용하여 각종 행사가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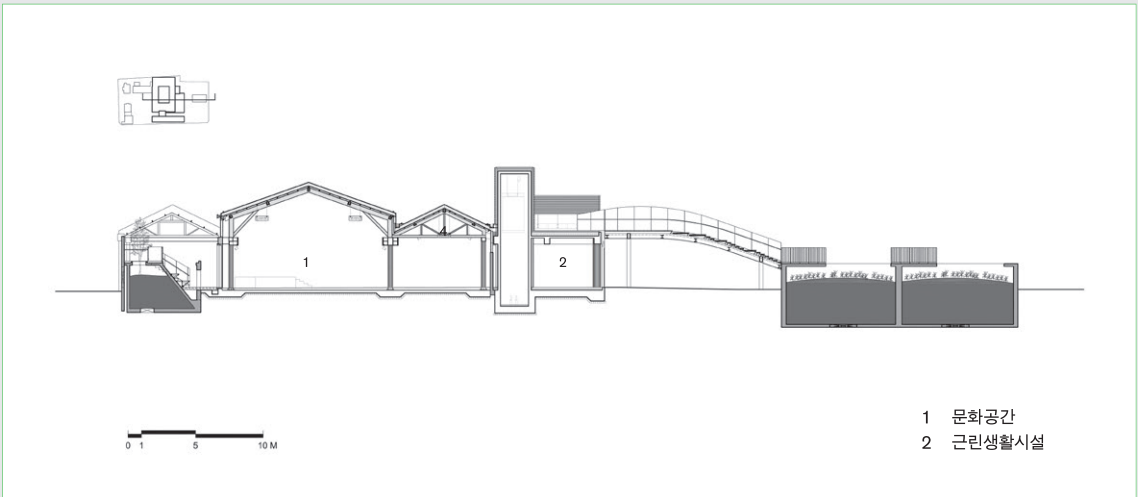
기존 외부공간을 활용한 마당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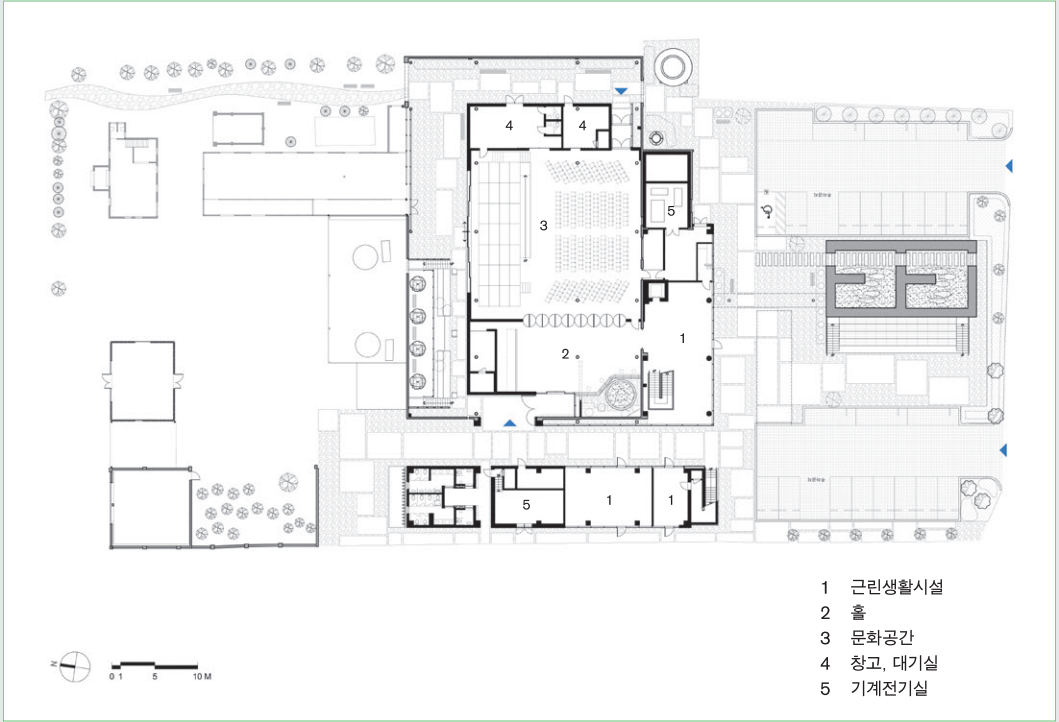
조경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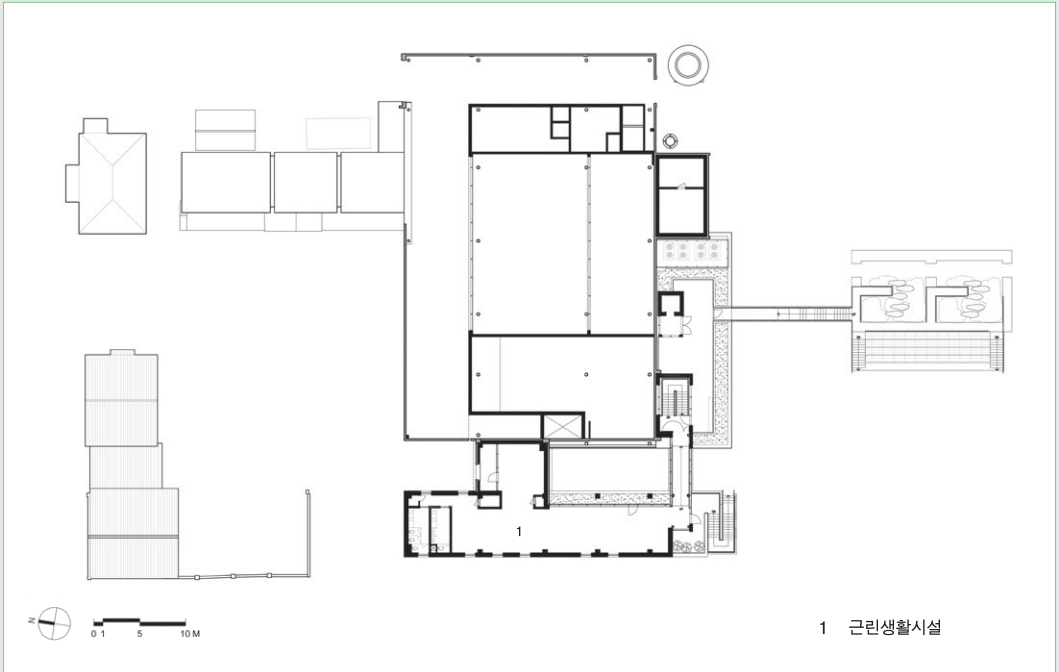


단면도



- 1 근린생활시설
- 2 홀
- 3 문화공간
- 4 창고, 대기실
- 5 기계전기실

1층 평면도



- 1 근린생활시설

2층 평면도



상 옛 내부수조를 활용해 조성한 휴게공간
중 옛 원형수조를 활용한 실내정원
하 옛 저수조를 활용한 놀이휴게공간

기존 벽체와 신설 벽체

기존 벽체를 통해 예전의 기억을 보존하면서 새로운 용도를 담아낼 수 있게 하였다. 공장건물의 경계였던 요소를 남겨두고 싶었고, 세월의 흔적이 안과 밖에 담겨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하였다. 따라서 기존 벽체와 신설 벽체의 레이어를 분리하였고, 단열재는 신설 되는 벽체에만 설치하여 기존 벽체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붕 목재 트러스 및 가구

근대산업시설이 지닌 특유의 박공 형태 지붕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획 당시 이미 철거된 상태였다. 철거한 목재 트러스는 재사용하기 위해 현장에서 보관 중이었지만, 적합하지 않은 보관방법으로 인해 구조재로서의 내구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현행법상 내화 구조 기준을 적용하기도 어려운 부재였다. 따라서 기존 목재 트러스를 재사용하기보다는 현행법에 맞는 구조체를 설치하고 인테리어 요소로서 기존 목재 트러스를 재현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천장에 쓰이고 남은 목재는 로비 부분의 의자, 테이블 그리고 출입문 등의 마감재로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변해 가는 나무의 색과 질감을 리모델링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굴뚝

벽돌로 쌓아 올린 기존 굴뚝은 상당히 위태롭게 기울어진 상태였고, 굴뚝을 감싸고 있던 녹슨 철물들이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공장에서의 쓰임은 다하였지만, 상징적인 요소로서 쓰임은 계속되어야 하였기에 구조물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굴뚝의 벽돌을 최대한 손상이 없게 해체하고 현행법상 공작물의 구조기준을 만족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중앙부에 세웠다. 그리고 해체한 벽돌을 다시 쌓아 예전의 굴뚝 모습이 갖추어지도록 하였다.

수조

수조들은 예전 그대로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내부를 물 대신 흙으로 채워 넣었고, 새롭게 태어난 이 공간이 풀과 나무가 자라는 그릇이 되기를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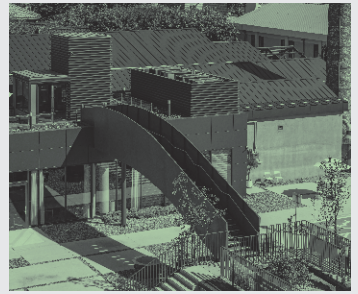
남측 마당의 저수조는 오랜 세월에 걸쳐 생긴 물때가 있는데, 구조체 일부만 철거하여 방문객이 물의 흔적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한쪽에는 스탠드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거나 옥외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러 켠의 시간이 공존하는 재생공간

공장 건물 중 한 채는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부지 입구에 있는 관리동(학사관)은 복원을 마친 상태였다. 그중 가장 큰 공장 건물을 공연장과 전시장, 카페 등을 넣은 새로운 용도의 공간으로 변경해야 하였다. 산업유산의 재사용(Adaptive Reuse)을 위한 원형보존은 안전문제와 건축 관련법의 여러 조건과 부딪혔다. 역사적 가치의 변형을 피할 수는 없지만, 전체 맥락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불가피하게 덧대어져 생긴 어색함과 낯선 여러 켠의 시간이 공존하는 이곳의 매력이 되었다.

방문객은 큰길 안쪽 주택가에서 우연히 마주치듯 이곳을 찾게 되며, 역사의 기억에 반응하게 된다. 과거 공장 부지의 단절된 외부 공간에서 문화공원을 산책하듯 순회하는 동선의 흐름을 만들고자 폐공장의 벽체를 뚫기도 하고, 새로운 벽체를 만들기도 하였다. 내부공간을 만들기 위해 조심스럽게 세운 벽체들의 구성은 외부공간의 형성에 무게를 더 주고자 하였다. 아울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양한 마당을 만들어 걷는 문화공간을 제시하였다. 그렇게 연결된 동선을 통해 부지 전체가 도심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선 한양의 강북과 신도시의 강남으로 나뉜 서울에서 역사가 공존하는 도심재생공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역사와 문화를 두텁게 만드는 지역문화재생은 세종시 원도심과 신도심이 안고 있는 불균형의 간극을 줄이고, 문화적 욕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건축과 공간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활기는 문화재생의 영감을 자극할 것이다.



상 연결마당
중 연결브릿지 전경
하 연결브릿지 하부